

# 武科合格・軍官生活・戰術能力에 나타난 李舜臣의 武學研究

張 學 根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1. 序 論
2. 李舜臣의 武科 進出
3. 武科同期의 官僚進出 推移
4. 李舜臣의 初級 軍官生活과 제1차 白衣從軍
5. 戰亂 中 李鎰과 李舜臣의 戰術能力 比較
6. 結 論

## 1. 序 論

조선왕조는 文·武科 출신 인재를 중심으로 富國強兵을 이룩하려 했다. 그것은 科擧라는 객관적 관리선발을 통해 力動的 國家發展을 추진하려는 노력이었다. 특히 고려시대에 행해지지 않던 武科를 조선시대에 시행한 것은 文·武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조선시대의 科擧合格者는 모두 관직에 나가 高級官僚로 승진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무과 합격자들은 국방의 엘리트 관료로서 전쟁에 참여하여 탁월한 전술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본고 전반부에서는 丙子武科 출신자의 官僚進出 推移와 李舜臣의 초급관료생활부터 全羅左水使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것은 무과합격 서열과 관료진출의 相關關係와 관료생활 여건 등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과거가 갖는 意味와 役割을 음미하고자 한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임진왜란 기간 중 勝敗를 달리한 두 무과 출신 장수, 李鎰과 李舜臣의 관료생활과 그들이 전란 중 참가했던 戰鬪를 통해 전술능력의 差異를 살펴보고 했다. 그것은 같은 武科出身이라 하더라도 指揮官의 戰術 能力을 발휘하는데 있어 그 바탕이 武藝여야 하는가 아니면 武學이어야 하는가의 물음에 답변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노력은 생명을 바쳐 國家를 保護해야 하는 전쟁상황에서 創意力과 戰術 應用能力 발휘가 무과합격 서열이나 관직경험에서 얻어진 것 보다 평소 그들이 추구한 學問領域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李舜臣의 武科 進出

조선시대는 文臣을 중심으로 한 양반 관료사회였다. 武臣은 국방과 치안이라는 比重있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兩班社會에서 武臣은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으며 사회적인 위상도 문신에 비해 次等하게 인식되었다. 이는 조선의 統治規範이 文治主義를 표방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文科進出의 꿈을 접고 武科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힐만한 자료는 없다. 단지 「이순신의 行錄」에

다음과 같은 짧은 구절이 있다.

“처음에는 두 형을 따라 儒學을 배웠는데 재주가 있어 성공할 만도 했으나 매양 붓을 던지고 군인이 되고 싶어했다. 22세 되던 겨울부터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팔심과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에 동료들이 따를 자가 없었다.”<sup>1)</sup>

위의 기록은 이순신의 신체적 조건과 武人氣質이 어려서부터 출중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뿐 그가 文科를 단념하고 武科를 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무과를 위한 예비 교육기관이 없어 獨學으로 무과에 합격하기란 불가능하였다.<sup>2)</sup> 또한 시험과목 중 騎射·騎槍·騎擊毬 등의 乘馬術이 포함되어 있어 個人 馬를 소유할 정도의 財力이 뒷받침되고 무예를 지도할 스승이 있어야만 했다.

당시 이순신의 가문은 경제적으로 寒微해진 상태였으므로 이순신의 천부적 武才만으로 무과에 합격했다고 볼 수 없다. 이순신이 文科의 꿈을 포기하고 무예를 연마하게 된 것은 武科出身으로 보성 군수를 역임한 장인 方震의 勸誘와 指導가 있었다는 다음 설화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方震은 武弁 출신으로 膂力이 過人하고 騎射에 능하였다. 方震은 累代로 牙山 백암리에서 살아와 가세도 不貧하였다. … 순신의 부친과 방진이 約婚하고 그해 乙丑년 8월 모일에 성혼하였다. 이로부터 순신은 방진의 아들 겸 사위가 되어 처가인 아산 백암리에 香樹壇을 묻고 弓術과 妙藝에 岳丈인 장인 方震에게서 전수 받았다.”<sup>3)</sup>

1) 『李忠武公 全書』 하 권9, 부록1 行錄1 正郎 芬.

2) 『太宗實錄』 권33, 태종 17년 윤 5월 己未.

훈련원의 무과 예비교육에 필요한 田地配定 요구가 거절되었다.

3) 金淇驪 『李舜臣 世家』 卷之一.

위의 인용문 중 方震은 膂力과 騎射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財力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가 무과 출신자라는 점에서 이순신에게 武藝와 武學을 지도할 자격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순신이 무예를 연마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5개월 이 지난 1566년(22세)부터 였다는 이순신 行錄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순신이 문과의 꿈을 접고 무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장인 方震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sup>4)</sup>

이순신이 처음으로 訓練院試에 응시한 것은 그가 무예를 연마한지 6년 후인 1572년이였다. 그러나 落馬함으로써 실격하게 되었다. 그가 낙마했다는 사실은 무과에 합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후 이순신은 3년간 무예를 더 연마한 후 鄉試를 거친 다음 해(1576년) 병자 식년 무과에 응시하였다. 이순신은 초장에 합격한 후,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일이 있다.

“무과 초장을 치르고 온지 23일만에 舜臣이 서신을 올립니다.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험을 치른 여독이 아직도 남아 있어 남 보기 민망합니다.

이번 初場(일차 시험)에 執事께서 장원을 하시고 저 역시 합격권에 들었으니 이것은 일시적으로 감축할 일이 아니며 장차 이·삼차 시험에서도 (우리가) 합격하리라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다행입니다.”<sup>5)</sup>

이 서간문에 의하면 초장에 합격한 이순신은 앞으로 있을 覆試와 殿試에서도 합격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武科를 준비해 온지 10년만의 일로서 그의 武藝와 武學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

4) 『李忠武公 全書』 위와 같음.

5)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李忠武公 書簡文』.

行旆餘 念三日舜臣拜 侍侯更若何 仰慰湊區區 記下 路總尙餘悶人悶人 今番初場執事壯元 記下亦爲參榜 非但暫時感祝 來頭事誠非偶然 尤切萬幸萬幸.

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합격서열은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최근 수집된 丙子武科榜目을 분석·도표화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丙子武科 合格 序列

順位	現職責	姓名	現居住地	父 職位 및 品階	父母關係	兄弟	出生年度
甲科 1	司 僕	文命新	京	前萬戶(宗4)	具慶下	無	1544(33)
	保 人	朴宗男	京	內禁衛	慈侍下	無	1549(28)
	內禁衛	愼好義	公州	前部將	具慶下	兄1, 弟4	1550(27)
乙科 1	忠順衛	柳夢經	京	禦海將軍行忠武衛司果(정3)	嚴侍下	兄1	1543(34)
	定虞衛	宋風壽	東來	禦海將軍(정3)	具慶下	無	1539(38)
	忠順衛	元 喜	原州	禦海將軍行阿山萬戶(정3)	慈侍下	弟1	1543(34)
	司 僕	柳之榮	京	學生	慈侍下	無	1542(33)
	內禁衛	金大器	京	德山縣監((宗6)	具慶下	兄1	1549(28)
丙科 1	忠順衛	黃義元	京	奉正大夫行新昌縣監(宗4)	慈侍下	兄1	1548(29)
	內禁衛	黃順孝	京	奉直郎行司饗院奉事(宗5)	永感下	兄1	1536(41)
	忠義衛	李慶綠	京	通訓大夫行懷德縣監(정3)	具慶下	無	1549(34)
	保 人	李舜臣	牙山	彰信校尉(宗5)	具慶下	兄1, 弟1	1545(32)
	司 僕	閔士俊	京	通訓大夫行軍器寺判官(정3)	永感下	兄1, 弟1	1537(40)
	甲 士	申 欽	載寧	學生	具慶下	無	1540(37)
	定虞衛	尹大受	清安	彰信校尉(宗5)	慈侍下	無	1545(32)
	內禁衛	金德寬	京	通正大夫瑞典府使(정3)	永感下	兄3	1534(43)
	定虞衛	李希龍	慶州	別侍衛	慈侍下	兄1	1549(28)
	內禁衛	申 嘩	京	通訓大夫行黃州判官(정3)	永感下	無	1537(40)
	定虞衛	尹思恭	夫餘	學生	具慶下	兄1	1537(40)
	定虞衛	金弘福	海南	安陵參奉(宗9)	慈侍下	兄2	1539(38)
	別侍衛	南致溫	宜寧	內禁衛	慈侍下	兄2	1532(45)
	忠順衛	崔士恭	京	副司直	永感下	無	1540(37)
	定虞衛	金成業	扶安	學生	慈侍下	無	1553(24)
	定虞衛	朴大男	稷山	忠順衛	具慶下	無	1554(23)
	保 人	成永吉	京	顯信校尉副司直(宗5)	永感下	兄1	1544(23)
	忠義衛	具思稷	京	禦海將軍行都摠府都事(정3)	字脫落	兄1	1525(52)
	內禁衛	秦夢暹	京	禦海將軍行三陟浦僉使(정3)	永感下	兄2	1538(39)
	保 人	李忠信	廣州	中訓大夫前行司憲府監察(宗3)	具慶下	弟1	1552(25)
	內禁衛	李邦佐	字脫落	東節校尉(宗6)	永感下	兄1, 弟1	1548(29)

<표 1>에 의하면 이순신의 무과 최종 합격서열은 29명 중 12등이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는 합격서열에 따라 任官品階를 달리하였다. 즉 일등계열 3명을 甲科, 이등계열 5내지 7명을 乙科, 기타 합격자를 丙科로 합격자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甲科 首席 합격자는 초임 품계가 종6품이었으며, 나머지 합격자는 정7품을 수여하였다. 乙科 합격자는 전원 정8품에, 丙科 합격자는 9품이 수여되었다.<sup>6)</sup> 따라서 이순신은 초임 품계가 9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에 무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했다. 제1단계는 예비시험으로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院試와 지방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는 鄉試였다.<sup>7)</sup> 이는 본과의 시험관리에 필요한 적정 수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經國大典에 규정된 훈련원 및 지방별 선발 인원은 <표 2>와 같다.

훈련원과 지방에서 선발된 190명은 다시 初試와 覆試를 통해 28(29)명이 선발된다.<sup>8)</sup> 이들은 국왕이 親任한 殿試를 보아야 했다. 전시는 합격서열만을 결정하는 최종 시험으로써 이 때 初試와 覆試의 성적은 백지화되고 殿試의 시험결과만으로 서열을 사정했다. 조선시대 무과의 시험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 3>과 같다.

<표 2> 무과 초시 선발인원

區 分	院試	鄉 試							階
		경 상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경국대전』	70명	30명	25명	25명	10명	10명	10명	10명	190명

6) 『經國大典』 吏典, 諸科.

7) 『經國大典』 試取, 武科.

8) 『經國大典』 兵典 試取 武科.

무과복시의 합격자는 28명이 원칙이지만 丙子武科試와 같이 29명이 될 때도 있다.

<표 3> 武科의 試驗科目

法典 試驗名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武藝	講書	武藝	講書	武藝	講書
初試	木箭(240步) 鐵箭(80步) 片箭(130步) 騎射 騎槍 擊毬	無	『경국대전』과 同 騎射→騎芻 (관혁:50보)·柳葉箭 (120보)·烏銃(100보)· 鞭芻추가	無	『속대전』과 同	無
覆試	初試와 同	四書五經 중 1, 武經七書 중 1, 通鑑, 兵要, 將 鑑, 博議, 武經 중 1. 經國大典	『경국대전』과 同	無	(臨文考講) 『경국대전』과 同	武經七書 중 『吳子』 제외
殿試	騎擊毬 步擊毬	無	左同	無	左同	無

<표 3>에서 보여지듯 무과의 시험과목은 木箭·鐵箭·片箭 등 궁술과 騎射·騎槍·騎擊毬·步擊毬 등 승마술, 그리고 四書五經·武經七書·通鑑·經國大典 등 講書試驗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험과목의 성적은 覆試의 28명 인원을 선발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 시험이었을 뿐이다. 覆試에 선발된 28명은 전사에서 騎擊毬와 步擊毬의 성적만으로 합격서열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순신의 경우 그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講書와 弓術은 제외된 반면 그에게 불리한 騎擊毬와 步擊毬의 성적만이 합격서열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합격서열이 좋지 못했던 둘째 이유는 武藝의 獨學이었다. 丙子 武科 합격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lt;표 4&gt; 병자무과 합격자의 현직

직업	司僕	保人	內禁衛	忠順衛	定虜衛	忠義衛	甲士	別侍衛	계
인원	3	4	7	4	7	2	1	1	29

<표 4>에 의하면 무과 합격자 29명 중 保人 4명을 제외한 26명 전원이 현직 軍官이다. 그들은 해당 군부대에 임관하기 위해 이미 무과 고시과목과 거의 동일한 무예를 연마했으며,<sup>9)</sup> 군내의 평시 훈련도 고시과목의 반복 교육이었다. 특히 騎擊毬와 步擊毬는 현직 군관의 必須 武藝術이었다. 반면 保人 신분으로 私家에서 무예를 연마한 이순신의 乘馬術은 체계화된 승마술을 반복한 현직 군관들의 승마술을 능가할 수 없었다. 또한 시각적 품새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승마술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騎擊毬와 步擊毬만으로 순위 사정을 한 殿試는 이순신에게 불리했던 것이다.

셋째, 무과합격 때 이순신의 나이가 32세라는 점에서 그의 무과합격이 다른 합격자에 비해 늦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丙子年 武科 榜目에 나타난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34세였으며, 이순신 보다 연장자가 17명이나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시대 사로 진출의 年齡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시대 무과 합격서열은 武藝와 武學을 총괄하는 평가가 아니라 殿試의 시험 과목인 騎擊毬와 步擊毬 두 종목의 점수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합격자의 평균 연령도 34세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순신의 합격서열은 열등한 것이 아니었으며 합격연령도 늦었다고 볼 수 없다.

9) 『經國大典』各衛 武官 選拔試驗 참조.

### 3. 武科同期의 官僚進出 推移

조선 왕조가 武科를 실시한 목적은 무학과 무예의 優秀者를 客觀的으로 選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관료생활 중 合格序列 優秀者는 劣等者에 비해 高位官職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一般的 見解일 것이다. 丙子武科 합격자의 官僚生活의 推移를 『宣祖實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文命新: 문명신은 丙子武科에서 갑과 수석을 한 영재였다. 그는 조선시대 최 정예 騎兵 親衛隊였던 兼司僕의 현역 군인 신분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갑과 수석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갑과 수석인 경우 반드시 入官시킨다는 경국대전 기록으로 보아 그가 임관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함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임관 후 곧바로 사망했거나 실록에 기록될 정도의 功이 없어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朴宗男: 박종남은 28세 때 이순신과 같은 보인 신분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갑과 차석을 하였다. 그는 갑과 차석이었으므로 이순신이 종9품에 임관되었을 때 이순신 보다 4계급 위인 정8품에 임용되었다.<sup>10)</sup> 그는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자 춘천부사(종3품)에 임명되어 방어사의 임무를 겸직하게 되었다. 그는 왜군이 가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勤王을 명분으로 鎭營을 이탈하여 서울로 도망쳤다.<sup>11)</sup> 박종남이 군무를 이탈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자 侍衛의 공로를 인정받아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가 되었다. 1592년 8월 회양(淮陽)부사(종3품)에 임명되었으며, 강원도 방어사를 겸직하였다. 1593년 6월 평안도 別將으로 평안도 좌방어사 朴名賢과 의병장 裨好益과 함께 청도의 왜군 추격전에 참전했으며,<sup>12)</sup> 동년 7월

10) 『경국대전』 吏典, 과거합격자 처우규정 참조.

11)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庚申.

『선조 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庚申.

鄭希玄, 朴名賢, 權應銖 등과 진주방어전에 참전하였다.<sup>13)</sup> 진주성이 왜군에게 함락되자 휘하군사를 거느리고 明將 吳 遊擊이 草溪地域에 방어선을 구축한 곳으로 이동, 明軍과 함께 왜군방어 임무를 수행했다.<sup>14)</sup> 당시 박종남은 권율과 이순신이 2차 거제도 확보전을 추진하고 있을 때 助防將이란 직책으로 한산도의 이순신 군영에 배치되어 약 6개월간 이순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바 있다.<sup>15)</sup> 그 후 박종남은 광주목사(정3품)로 영전되었으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며,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했다.<sup>16)</sup> 그러나 동년 11월 우부승지 禹俊民의 추천을 받아 會寧府使에 부임했다.<sup>17)</sup> 회령부사 재직시 “蕃胡을 수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춘천 부사 시절 敗軍,<sup>18)</sup> 진주 방어전에서의 啓寵事件<sup>19)</sup>이 문제가 되어 충청수사와 함경남도 병사에 추천되었지만 선조의 반대로 회령부사를 끝으로 관직을 마쳤다.

愼好義: 신호의는 내금위 소속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갑과 3등(중합 서열 3위)을 한 사람이다.<sup>20)</sup> 그러나 왕조실록에 그의 이름과 활약상이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다.

柳夢經: 유몽경은 忠順衛 소속으로 乙科 1등(중합서열 4등)을 한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洪祉, 龍天澤, 趙應瑞 등과 함께 임지에서 도망쳤다는 비변사의 보고<sup>21)</sup>와 의금부의 確認<sup>22)</sup>이 실록에 기록되었을 뿐 이후 행적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파직된 후 복권되지

12) 『선조실록』 권39, 선조 26년 6월 기축.

13) 위의 책, 권40, 선조 26년 7월 癸亥.

14) 위의 책, 권41, 선조 26년 8월 壬午.

15) 위의 책, 권56, 선조 27년 10월 丁巳.

16) 위의 책, 권75, 선조 29년 5월 乙未.

17) 위의 책, 권82, 선조 29년, 11월 甲寅.

18) 위의 책, 권114, 선조 32년, 6월 戊寅.

19) 위의 책, 권58, 선조 27년 12월 甲辰.

20) 丙子武科榜目 참조.

21) 위의 책, 권95, 선조 30년 12월 乙丑.

22) 위의 책, 권95, 선조 30년 12월 戊辰.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宋鳳壽: 송봉수는 乙科 2위(종합 서열 5위)를 한 사람이었으나 그에 관한 실록 기사는 전무하다. 급제 후 사망했거나 임관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元 禧: 원희는 충순위 소속으로 을과 3등(종합서열 6등)을 했다. 그는 선조 16년(1583) 鍾城 판관(중5품)으로 북방 변경을 방어하고 있었다. 1583년 5월 북방야인 栗甫里와 尼湯介가 1만여 명이 기병을 이끌고 중성을 침략해 왔을 때 그의 활약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판관 元禧는 기보병 1백명을 지휘하여 적과 대항했으며, 적이 중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자 함경북도 兵使 金愚瑞는 淸野入堡를 명했다. 해가 저물자 적이 퇴각하기 시작했다. 중성부사 柳永立이 적을 추격할 것을 병사에게 건의했으나 병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元禧에게 騎兵將 金嗣成을 지휘하여 東門을 열고 나아가 적을 추격하도록 명령했다. 원희는 즉시 적을 추격하여 적의 수급 5급을 베어오는 전과를 세웠으나 병사 김우서는 명령을 이겼다하여 杖刑을 가했다.”<sup>23)</sup> 이후 원희에 대한 실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파직된 후 복직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柳之榮: 유지영은 司僕에 소속된 군인으로서 무과에 응시하여 乙科 4등(종합서열 7등)을 했다. 그는 선조 21년(1588) 司僕寺 主簿(중6품)에 보직되었으나, 사람됨이 어리석고 망령되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된 후 그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sup>24)</sup>

金大器: 內禁衛 현역 군인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乙科 5등(종합서열 8등)을 했다. 선조 20년(1587) 낙안군수(중4품)로 해양방위 임무를 수행했으며,<sup>25)</sup> 선조 32년(1599)년 中殿이 遂安에 머물 때 扈從했다는 공로로 숙마 1필을 하사 받기까지 했으나<sup>26)</sup> 곧 사망했다.

23) 『선조 수정실록』 권17, 선조 16년 5월 壬午.

24) 『선조실록』 권22, 21년 1월 己丑.

25) 위의 책, 권21, 선조 20년 7월 辛亥.

26) 위의 책, 권115, 선조 32년 7월 辛未.

黃義元: 丙科 1위(중합서열 9등)를 한 황의원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없다.

黃順孝: 병과 2위(중합서열 10등)를 한 황순효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없다.

李慶錄: 이경록은 忠義衛 소속 현역 군인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이순신 보다 서열이 한 등급 위인 병과 3등(중합서열 11등)을 한 사람이다. 이순신이 1587년 造山萬戶(중4품)와 녹둔도 둔전관을 겸하고 있을 때 이경록은 함경북도 일원의 만호와 둔전관을 통제하는 慶興府使(중3품)로 근무했다. 무과 동기생인 이경록과 이순신이 上下指揮體系를 이루며 북방변경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賊胡가 鹿屯島를 침략하여 우리 군사 10여 명을 살해하고 주민 106명과 말 15필을 잡아간 사건이 발생했다.<sup>27)</sup> 이 사건으로 이경록과 이순신은 敗戰의 問責을 받아 함경북도 兵使 李鎰의 杖刑과 白衣從軍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sup>28)</sup> 1590년 왜침의 징후가 증폭되자 비변사는 南方防禦 강화방안으로 이경록과 이순신을 다시 채용하지는 건의를 했다.<sup>29)</sup> 선조는 이경록을 김해부사(중3품)에 임명했다.<sup>30)</sup> 1591년 2월 왜군이 전라도로 침략할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이경록을 나주목사(정3품)로 전보하고, 이순신을 진도군수(중4품)에서 超資하여 전라좌수사(정3품)에 임명하라는 어명이 있었다.<sup>31)</sup> 그러나 羅州는 남방의 巨鎮이며 군사요충지임으로 才略이 있는 문관을 골라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경록은 나주목사에 부임치 못하고<sup>32)</sup> 제주목사로 전보되고 나주목사에는 權慄이 임명되었다.<sup>33)</sup>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경록은 7년간 제주도에 근무하다 병사하였다.<sup>34)</sup>

閔士俊: 민사준은 司僕 소속의 현역 군인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13등한 사람이다. 1580년 훈련습독(품계가 없는 무예훈련생)으로 훈련원에서 무예를

27) 위의 책, 권21, 선조 10년, 10월 乙丑.

28) 위의 책, 선조 20년, 10월 辛未.

29) 위의 책, 권23, 선조 22년 7월 癸酉.

30) 위의 책, 권23, 선조 22년 8월 辛卯.

31) 위의 책, 권25, 선조 24년, 2월 庚辰.

32) 위의 책, 권25, 선조 24년 2월 乙酉.

33) 위의 책, 권25, 7월 庚午.

34) 위의 책, 권113, 32년 5월 庚午.

연마하고 있던 중,<sup>35)</sup> 선조가 비변사 당상들에게 내린 ‘인재 추천지시’에 따라 朴好元의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아갔다. 그의 첫 직책은 萬戶(중4품)였으며,<sup>36)</sup> 이후 직급이 2품이나 낮은 절제도위로 약 5년간 근무하다 당상관인 高嶺僉使(정3품)가 되었다. 그러나 성품이 교만하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보직 해임됨으로써 관료생활을 마쳤다.<sup>37)</sup>

申 欽: 신흙은 甲士 소속의 현역 군인으로 무과 14등에 합격했다. 그의 초임 직책과 근무처는 알 수 없다. 그는 선조 26년(1593) 2월 사헌부 지평(정5품)이 되었다.<sup>38)</sup> 무관인 그가 政治爭論을 바르게 이끌고, 관원의 風紀와 非違를 규찰하는 사헌부 지평이 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1593년 5월 그는 文官職인 이조 정랑(정5품)으로 진출되었다.<sup>39)</sup> 임진왜란이 격화되자 조정에서는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작성할 製述文官을 선발할 때 무관인 신흙이 선발되기도 했다.<sup>40)</sup> 신흙은 선조 27년(1594)년 5월 司僕寺 僉正(중4품)이 됨으로써 文官職에서 武官職으로 복귀했지만,<sup>41)</sup> 새 보직에 부임도 하기 전에 명의 원점사로 떠나는 윤선각의 종사관에 발탁되었다.<sup>42)</sup> 명나라를 다녀온 신흙은 선조 28년(1595)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다시 명나라를 다녀왔다.<sup>43)</sup> 이후 신흙은 장악원 첨정(중4품),<sup>44)</sup> 성균관 司藝(정4품),<sup>45)</sup> 호조의 內資寺正(정3품: 당하관)으로 영전되었으며,<sup>46)</sup> 이후 오위 도총부

35) 위의 책, 권14, 선조 13년 5월 甲午.

36) 위의 책, 권16, 선조 15년 11월 庚辰.

“민사준은 성품이 본래 교만한데다 만호에서 6품에 오른 지 5년이 채 안되어 당상에 올랐음으로...”라는 구절로 보아 만호(중4품)로 관직을 시작한 것은 분명하나 직무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37) 위의 책, 권16, 선조 15년 11월 庚辰.

38) 위의 책, 권35, 선조 26년 2월 丁亥.

39) 위의 책, 권38, 선조 26년 5월 庚申.

40) 위의 책, 권44, 선조 26년 11월 壬子.

41) 위의 책, 권51, 선조 27년 5월 己卯.

42) 위의 책, 권51, 선조 27년 5월 庚辰.

43) 위의 책, 권61, 선조 28년 3월 庚子.

44) 위의 책, 권64, 선조 28년 6월 壬午.

45) 위의 책, 권67, 선조 28년 9월 庚辰.

부총관(중2품),<sup>47)</sup> 병조참판(중2품)<sup>48)</sup>을 거쳐 한성부 판윤(정2품)에 올랐다.<sup>49)</sup> 그는 선조 39년(1606) 무신의 최고 직책인 병조판서(정2품)가 되었으며<sup>50)</sup>, 동년 9월 문관직인 예조판서로 전임되었다.<sup>51)</sup> 신흠은 문무관직을 고루 역임한 사람이었다. 그는 1606년 9월 17일 국왕인 선조에게 과분한 중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면직 상소를 올려 오랜 관직생활을 스스로 마감했다. 武科 출신인 그가 하급관리부터 고급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文官職을 수행한 것은 經典과 製述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가 『黃華集』의 序文과<sup>52)</sup> 『宣祖大王 哀冊文』<sup>53)</sup>을 집필한 점만 보아도 그의 탁월한 문장 능력을 엿볼 수 있다.

尹大受: 윤대수는 무과 15등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선조실록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다.

金德寬: 무과 16등을 한 김덕관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없다.

李希龍: 무과 17등을 한 이희룡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없다.

申 曄: 무과 18등을 한 신엽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없다.

尹思恭: 무과 19등을 한 윤사공에 관한 실록의 기록도 없다.

金弘福: 무과 20등을 한 김홍복 관련 실록의 기록은 없다.

南致溫: 무과 21등을 한 남치온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崔士恭: 무과 22등을 한 최사공에 관련된 실록 기록은 없다.

46) 위의 책, 권82, 선조 29년 11월 甲寅.

47) 위의 책, 권149, 선조 35년 4월 壬寅.

48) 위의 책, 권188, 선조 38년 6월 丁未.

49) 위의 책, 권193, 선조 38년 庚子.

50) 위의 책, 권200, 선조 39년 6월 丙午.

51) 위의 책, 권200, 선조 39년 6월 丙午.

52) 위의 책, 권200, 선조 39년, 6월 丙午.

53) 위의 책, 권221 부록 『宣祖大王 哀賁文』.

金成業: 김성업은 24세 젊은 나이로 무과 23등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합격자 보다 늦은 선조 34년(1601) 12월에 長連縣監(중6품)이 되었다.<sup>54)</sup> 뒤늦게 임관했지만 현감 재직 1년도 못되어 백성을 침탈했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sup>55)</sup> 이후 그의 행적은 실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朴大男: 박대남은 定虜衛 소속 현역 군인으로 23세에 무과에 응시하여 24등으로 합격한 사람이다. 그는 선조 13년(1580) 수문장(중6품)으로 재직하던 중 부친상을 당해 廬墓 살이를 하다 관비와 통정한 것이 발각되어 영구 파직되었다.<sup>56)</sup>

成永吉: 성영길은 保人 신분으로 23세에 무과에 응시하여 25등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그의 관직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전무하다.

具思稷: 구사직은 忠義衛 소속 군인 신분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52세에 합격했다. 그의 초임 관직은 알 수 없다. 임진년(1592)에 가리포 첨사(중3품)로 부임했다.<sup>57)</sup> 1595년 7월 황해병사(중2품)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入番 軍士의 代立, 직무태만, 군졸에게 支供要求 등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sup>58)</sup> 사간원으로부터 직무태만의 탄핵<sup>59)</sup>을 받았지만 후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유임하였다.<sup>60)</sup> 사간원의 계속되는 탄핵으로 원주목사(정3품)로 좌천되었다.<sup>61)</sup> 당시 왜군의 재침이 있을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원주목사와 助防將의 직무를 겸직케 하여 그에게 왜군의 강원도 침략을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sup>62)</sup> 정유재란(1597)이 발생하자

54) 위의 책, 권144, 선조 34년 12월 壬辰.

55) 위의 책, 권157, 선조 35년 12월 壬子.

56) 위의 책, 권14, 선조 13년 10월 壬寅.

57) 완역 『李忠武公全集』 하, (1989, 성문각) 465쪽.

58) 위의 책, 권65, 선조 28년 7월 乙亥.

59) 위의 책, 권68, 선조 28년 10월 戊午.

60) 위의 책, 권68, 선조 28년 10월 庚申.

61) 위의 책, 권71, 선조 29년 1월 壬辰.

62) 위의 책, 권82, 선조 29년 11월 辛丑.

강원도 방어사가 되어 왜군의 북상 길목인 조령과 추풍령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sup>63)</sup> 1599년 구사직은 충청병사(중2품)가 되었으며, 1604년 2월 훈원원 도정(정3품)으로 강등되었다가 동년 경기수사(정3품)로 전보되었다. 구사직이 승진과 강등을 반복하면서 끈질긴 관직생활을 하게 된 것은 선조의 평가와 같이 “청렴 근면하지만 적을 대적할 솜씨가 없기” 때문이었다.<sup>64)</sup> 관료로서 청렴한 장점과 장수로써의 재능부족으로 중2품직에서 정3품직을 오가며 관직생활을 해야만 했다. 선조 39년(1606) 중2품관인 전라병사로 재직하다 1607년 다시 중3품직인 평안도 구성의 도호부사로 강등되었다. 1611년 중3품직인 수원 도호부사 겸 경기방어사(중2품)을 겸직하게 되었다.<sup>65)</sup> 그의 나이는 이미 86세가 되었다. 동년 10월 18일 사헌부는 구사직이 늙고 병들어 경기도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罷職建議를 함으로써 지루한 관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sup>66)</sup>

秦夢漚: 진몽지는 내금위 소속 군관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27등으로 합격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전무하다.

李忠信: 이충신은 保人으로 무과에 응시해 28등에 합격한 자이다. 그는 1558년 사헌부 監察(정6품)이란 중책에 보직되었으나 친구 첩을 간음한 사실이 동료 사헌부 관원에게 발각되어 영구 파직되었다.<sup>67)</sup>

李邦佐: 이방좌는 내금위 소속 군인으로 무과에 응시해 29등을 했다. 그의 초임 관직은 알 수 없다. 그는 1596년 11월 충청도 助防將으로서 죽령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기록이 유일하다.<sup>68)</sup>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만들어 보면 <표 5>와 같다.

63) 위의 책, 권95, 선조 30년, 12월 丁卯.

64) 위의 책, 권199, 선조 39년 5월 壬午.

65) 『광해군 일기』 권41, 광해군 3년 5월 辛酉.

66) 위의 책, 권46, 광해군 3년 10월 甲申.

67)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2월 壬申.

68) 위의 책, 권82, 선조 29년 11월 壬戌.

<표 5> 李舜臣 武科 同期의 官僚 進出 狀況

合格序列		姓名	기록 없음	당하관 이하	당상관 이상	비 고
구분 서열	종합 서열					
甲科 1	1	文命新	○			임관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
	2	朴宗男			○	정7품으로 관직시작, 춘천방어사(정3품) 재임 중 근왕을 핑계로 임지 이탈, 세자 시위 공로로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가 됨. 회령부사(정3품)로 관직 마감.
	3	愼好義	○			임관 후 사망 추정
乙科 1	4	柳夢經		○		임지 이탈, 의금부 탄핵, 영구면직
	2	宋風壽	○			임관후 사망 추정
	3	元 喜		○		함경도 병사 김우서의 명령 불복, 장형 후 파직
	4	柳之榮		○		사복시 주부(중6품), '어리석고 망령되다'는 사헌부 탄핵, 파직
	5	金大器		○		낙안군수(중4품) 역임, 1599년 증전호종, 사망
丙科 1	9	黃義元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2	黃順孝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3	李慶綠			○	이순신이 조산만호(중4품)때 상급지휘관인 경흥부사(중3품)였음, '계략이 없다'는 조정의 평가, 제주목사(정3품) 7년 봉직 후 사망
	4	李舜臣			○	동구비보 권관(중9품), 훈련원 봉사(중8품), 발포만호(중4품), 파직, 훈련원 봉사, 건원보 권관, 훈련원 참군, 사복시 주부(중6품), 조산보 만호 녹둔도 둔전관 겸직, 백의 중군, 전라도 순찰사 군관, 정읍현감, 고사리진 첩사 발령(정읍현감 유임) 진도군수 발령 중 전라좌수사 임명(정3품) 수군 통제사, 백의중군, 통제사 재부임, 노량해전에서 전사

合格序列		姓名	기록 없음	당하관 이하	당상관 이상	비 고
구분 서열	종합 서열					
5	13	閔士俊			○	고령첨사(당상관) 재임 중 교만하다는 사헌부 탄핵, 면직
6	14	申欽			○	經典과 제술능력 탁월, 무관이 주로 문관직 근무, 병조판서·예조판서(정2품) 역임, 자연사
7	15	尹大受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8	16	金德寬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9	17	李希龍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0	18	申曄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1	19	尹思恭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2	20	金弘福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3	21	南致溫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4	22	崔士恭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5	23	金成業		○		장연현감(중6품) 재직 중 백성 침탈로 탄핵, 영구 파직
16	24	朴大男		○		수문장(중6품) 재직 때, 관비와 통정, 영구파직
17	25	成永吉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18	26	具思稷			○	52세에 무과 합격, 황해·충청병사(중2품)·경기 방어사(중2품) 역임, 86세로 관직 마감
19	27	秦夢暹	○			임관치 못한 것으로 추정
20	28	李忠信		○		사헌부 감찰(정6품)시 동료의 첩과 간음, 영구파직
21	29	李邦佐			○	충정도 조방장(정3품) 직무시 사망으로 추정

<표 5>에 의하면 李舜臣의 武科同期 29명 중 당상관 이상 관직에 오른 사람이 6명이다. 그 중 갑과 출신은 1명, 병과 출신이 5명이다. 당하관 이하의 총 8명으로 을과 출신이 4명, 병과 출신이 4명이다. 기록이 없는 합격자는 15명으로 갑과 2명, 을과 1명, 병과 12명이다. 과거의 성질상 갑과 출신은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관한 것만은 분명하다.<sup>69)</sup> 단지 실록에 기록될 만한 공적이 없었거나 일찍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을과 이하 합격자로서 기록이 없는 사람은 入官推薦<sup>70)</sup>을 받지 못해 임관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5>가 갖는 의미는 무과합격자의 仕路가 合格序列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즉 堂上官 이상의 진출자가 甲科나 乙科에 비해 丙科 出身이 壓倒的으로 많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병과 출신자의 경우 비록 任官品階는 낮지만 誠實 勤勉한 관료생활로 승진을 거듭한 경우가 李舜臣·申欽·具思稷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순신의 경우 無職으로 무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權管(종9품)이라는 최하위 관직부터 官僚生活를 시작하여 三道水軍統制使(종2품)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1회의 免職 2회에 걸친 白衣從軍과 1회 投獄 등의 逆境도 있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국가가 필요한 人物로 인정받아 復職되었다.

69) 『경국대전』 吏典, 과거합격자의 처우.

“갑과 수석자는 종6품을 수여하고, 나머지는 정7품의 품계를 수여한다”는 우대 규정이 있다.

70) 『경국대전』 吏典, 薦舉.

“중앙과 지방의 文班·武班으로서 3품 이상의 관원은 3년마다 정월에 각각 관직에 임용할 수 있는 인재를 3명씩 추천한다. … 매년 봄 첫달 문관으로 3품 이상 관료와 무관으로 2품 이상 관료는 지방 수령 또는 만호가 될만한 자격을 갖춘 자를 3인 이내로 추천한다.”

위의 책, 兵典, 軍官.

“군관은 武科合格者 및 복무기간이 만료된 별시위·감사 출신 중에서 각 鎮將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이들을 병조에서 심사한 후, 국왕에게 상신 임명한다.”

위 두 규정에 의하면 과거합격자라고 하더라도 추천되지 않은 자는 임관할 수 없었다.

申欽은 이순신 보다 합격서열이 2등이나 뒤진 14등을 했지만 經典과 製述能力을 인정받아 무관이면서 주로 文官職에서 근무했다. 이후 병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정2품)를 역임하고 自然死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仕路進出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과 合格序列보다 임관 후 勤務 誠實度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李舜臣의 初級 軍官生活과 제1차 白衣從軍

조선시대 과거 及第者들은 모두 임관되지 못했다. 특히 宣祖 즉위 초반 무과에 비해 우대를 받던 문과 급제자가 實職에 나가지 못하고 성균관과 교서관의 權知(임시직)로 10년을 넘긴 자들이 많았으며, 武科出身은 명종 11년(1556)에 급제하고도 17·8년이나 관직을 기다리다 포기할 정도로 인사적체가 극심하였다.<sup>71)</sup> 그 결과 이순신의 무과동기생 29명 중 13명이나 임관하지 못했고 7명이 종7품 이하로 관직을 마감했다.<sup>72)</sup>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무과에 급제했던 당해 년(1576) 겨울 威鏡道 童仇非堡 權管(종9품)에 보직되었다.<sup>73)</sup> 임관자체가 어려운 때에 합격서열이 우수하지 못한 이순신이 비록 종 9품의 權管에 임관된 것은 당시 함경도가 최전방 지역이었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유력자들이 근무를 기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순신은 오지에서 權管 3년 근무를 마치고 1579년 봄 종8품으로 승진, 훈련원 봉사로 근무하게 되었다.<sup>74)</sup> 훈련원에서 근무 중 이순신은 兵部郎(병조 正郎: 정5품) 徐益의 情實人事에 不當性을 지적

71) 『宣祖實錄』 권6, 5년 9월 丁亥.

72) 丙子武科 합격자 중 甲科를 제외한 乙科 5명과 丙科 21명 중 실록에 활동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은 13명이다.

73) 『李忠武公 全書』 권9, 부록1 行錄.

74) 위와 같음.

하였으며, 병조참판(정2품) 金貴榮의 聘胥關係 요청을 거절했다.<sup>75)</sup> 현실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훈련원 간부들의 입장에서 「不義와 妥協」을 거부하는 이순신은 불편한 존재였다. 훈련원 군관들은 이순신을 전출시킬 묘안을 찾게되었다. 그러던 중 충청병영에서 군관을 요청해 오자, 1579년 12월 훈련원 간부들은 이순신을 충청 병영으로 전보 조치하였다.<sup>76)</sup> 충청병영에서 채 1년도 근무하지 못한 이순신은 1580년 가을 처음으로 水軍部隊인 鉢浦 萬戶(종4품)로 승진하여 부임하였다.

이순신이 ‘동료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는 훈련원의 소문이 전라감사 孫軾에게까지 전해졌다. 손식은 管内 순시 중 綾城에 이르자 이순신을 불러 陣書 講讀 후 陣圖를 그리게 했다. 그것은 이순신을 처벌할 빌미를 잡기 위함이었다. 그의 예상과 달리 이순신이 그린 陣圖가 정교한 것을 본 孫軾은 그가 전해들은 말들이 이순신을 陰害하기 위한 풍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을 이순신에게 고백하기까지 하였다.<sup>77)</sup>

鉢浦는 전라 좌수사의 관할지역이었다. 전라좌수사 成鎔은 발포 객사 뜰에 오동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베어 오도록 했다. 이순신은 “이것은 官物이고 여러 해 길러 온 것을 베어 갈 수 없다”고 하여 좌수사의 傭員을 돌려보냈다. 이순신의 처사를 모욕으로 생각한 좌수사 성박은 후임 수사 이용에게 “그 모욕적인 사건”을 인계하였다. 신임 전라좌수사 이용은 이순신을 처벌하기 위해 휘하 소속포구의 수군 缺員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조사결과 관할 浦營 중 鉢浦의 缺員이 가장 적었다. 그러나 수사 이용은 「鉢浦 缺員」만 기록하여 이순신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 그때 본영 將領들이 “수사가 이순신에 대한 처벌 장계를 올렸다는 사실을 이순신이 알면 이순신은 그가 수집한 他浦口 缺員數를 상부에 보고하

75) 김규영이 그의 庶女를 이순신의 첩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순신은 “갓 入仕한 내가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가?”라고 거절하였다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 行錄).

76) 위의 책 참조.

77) 위의 책, 行錄 참조.

여 수사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할 수 있다”고 하여 수사의 처벌상소를 회收到하게 하였다.<sup>78)</sup> 1582년 봄 軍器 敬差官 徐益이 전라좌수영 관하 포구에 대한 軍器 검열을 하게 되었다. 徐益은 1579년 훈련원 정랑 시절 이순신의 「情實人事 抗議」로 그의 소신을 관철치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徐益은 「鉢浦의 軍器가 補修되어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 결과 이순신은 파직되었다. 그해 5월 이순신은 훈련원 봉사로 복직되었지만<sup>79)</sup> 품계는 종4품에서 종9품으로 강등되었다.

전라좌수사였던 이용이 1583년 함경남도 병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조정 에 이순신을 그의 군영으로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은 전라좌수사 시절 이순신을 처벌하려던 장본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순신을 자기 麾下 에 두려했던 것은 전라좌수사 시절 缺員調查에서 이순신 관할 포구의 결원이 가장 적었다는 眞實을 상기하고, 함경도의 軍額을 확보하는데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南兵使 병영의 軍官으로 약 3개월간 근무 하던 이순신은 같은 해 10월 乾原堡 權管(종9품)으로 전직되었다. 갑자기 보직이 변경된 것은 건원보가 尼湯介·鬱只乃 등과 같은 여진족의 침입이 잦았던 곳으로 이순신을 關防 책임자로 파견한 것이다. 이순신은 부임 즉시 건원보에 대한 防備策과 여진족을 誘引·捕獲할 묘책을 수립했다. 이순신의 伏兵術과 誘引策이 성공하여 건원보를 침략하는 울지내 일당을 소탕 하게 되었다. 조정이 이순신을 포상하려 하자, 함경북도 병사 金禹瑞는 ‘이순신이 主將에게 보고하지 않고 任意로 作戰을 했다’는 상소를 올려 포상이 중지되었다.<sup>80)</sup> 이순신은 外職 근무 만기로 參軍(정7품)에 승진되었다. 그러나 건원보 權官의 직임을 계속하던 중 1583년 11월 15일 부친의 부음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향리 아산으로 돌아와 奔喪·休官하였다. 1586년 1월 3년상을 마친 이순신은 사복시 主簿(종6품)에 복직되면서 16일 만에 함경

78) 위와 같음.

79) 위와 같음.

80) 위와 같음.

도 造山堡 만호(종4품)로 승진·전직되었다.<sup>81)</sup> 조산보는 경흥군 내에 위치한 변방지역으로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한 곳이었다. 다음해(1587) 8월 그는 鹿屯島 屯田官을 겸하게 되었다. 녹둔도는 조산보에서 20여 리되는 두만강 입구에 위치한 섬으로 1583년(선조 16년) 함경감사 鄭彦信이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屯田을 설치한 곳이다. 그러나 매년 흉년이 들어 屯田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sup>82)</sup> 1587년(선조 20년) 이순신이 조산보 만호로 부임하자 북병사 李鑑이 이순신에게 녹둔도 둔전관을 겸직시켜 둔전을 관리하게 했다. 이순신이 녹둔도 둔전을 경작한 당해년에 풍년이 들었다.<sup>83)</sup> 그것은 이순신이 정착민들과 화합하여 둔전을 경작한 결과였다.

당시 이순신의 상급 지휘관은 慶興府使(종3품)로서 이순신의 무과동기인 李慶錄<sup>84)</sup>(무과 합격서열 11등)이었다. 그리고 차상급 지휘관인 함경북도 병마사(종2품)는 李鑑이었다.<sup>85)</sup> 이순신은 녹둔도 防備軍增員을 병사 李鑑에게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李鑑은 이순신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9월 경흥부사 이경록이 煙戶軍을 이끌고 이순신과 함께 풍년둔 屯田穀을 수확하게 되었다. 그 때 압록강 건너편 時錢地域에 주거하고 있던 여진족 물간 우디캐족의 추장 何吾朗阿가 內地의 우디캐족과 연계하여 녹둔도를 침탈해 온 사건이 발생하였다.<sup>86)</sup> 방비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여진족의 침탈을 받게된 이경록과 이순신은 적을 맞아 싸웠으나 중과 부족으로 병사 10여 명이 戰死하고 주민 106명과 말 15필이 적에게 잡혀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sup>87)</sup> 불리한 전황에서도 이순신은 적을 추격하여 아

81) 이 때도 유성룡의 도움을 받아 조산 만호가 되었다(『선조실록』 선조 30년 1월 戊午).

82) 『宣祖修正實錄』 선조 20년 9월 丁亥.

83) 위와 같음.

84) 『丙子武科榜目』에 의하면 李慶錄은 무과합격 서열이 이순신 보다 1등 앞선 11위였다. 이순신이 조산보 만호(종4품)였을 때 이경록은 2품계가 높은 경흥부사(종3품)였다. 그것은 이경록이 현역 군관으로 무과에 합격하였기 때문이다.

85) 『宣祖實錄』 선조 20년 10월 乙丑.

86) 『制勝方略』 권1, 「造山堡」·「鹿屯島」.

87) 위와 같음.

군 포로 50여 명을 되찾아 오는 전과를 이룩했다. 그 과정에서 오랑캐가 쏜 화살이 이순신의 왼쪽 다리에 박히기까지 했다.<sup>88)</sup>

이순신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북 병사 李鎰은 자신에게 내려질 조정의 「敗戰 問責」을 부하지휘관들에게 미루기 위해 이경록과 이순신을 투옥시켰다. 그는 두 부하지휘관이 녹둔도의 방비를 소홀히 하여 여진족의 침략을 받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敗戰報告와 「국가를 愆되게 한 두 죄인」의 처리 문제를 조정에 요청하였다.<sup>89)</sup> 李鎰의 보고에 접한 비변사는 죄인을 서울로 押送·審問할 것을 선조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이경록과 이순신은 전쟁에서 패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杖刑을 집행하게 한 다음 白衣從軍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sup>90)</sup> 선조의 지시에 따라 李慶錄과 李舜臣은 병사 李鎰에게 杖刑을 당한 후 無補職 상태로 북병사 병영에 체류하는 白衣從軍의 벌을 받게 되었다.

1587년(선조 20) 11월 병사 李鎰은 六鎭을 순찰하던 중 慶興鎭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전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산만호 이순신이 여진족 何吾郎阿에게 패하여 자신이 지휘문책을 받을 뻔했던 사실을 상기하고, 여진족의 소굴인 時錢部落 공격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虞侯 金遇秋를 衛將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兵使營의 군사와 경흥진 군사 400여 騎를 지휘하여 시전부락의 공격을 명했다. 또한 白衣從軍 중에 있는 이경록과 이순신을 종군하게 하였다. 작전은 새벽 기습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조선군은 적의 廬舍 17채를 불태우고 오랑캐의 머리 33급을 베어 돌아오는 승전을 올렸다.<sup>91)</sup> 조선군의 공격이 진행되기 앞서 이순신과 이경록은 시전부락에 잠입하여 敵將 于乙其乃를 誘引 生捕함으로써 敵徒의 지휘체제를 와해시켰다. 그 결과 조선군의 焦土化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순신과 이경록

88) 『李忠武公全書』 권9 附錄1, 行錄1 참조.

89) 위와 같음.

90) 『宣祖實錄』 선조 20년 10월 辛未.

91) 『制勝方略』 제1권 녹둔도.

은 전투의 軍功으로 1588년 윤 6월 白衣從軍에서 풀려나 귀향하게 되었다. 시전부락 초토화 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이순신의 명성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sup>92)</sup>

## 5. 戰亂 中 李鎰과 李舜臣의 戰術能力 比較

임진왜란은 鎭管體制에서 制勝方略體制로 전환되는 시기에 발생한 戰亂이었다. 鎭管체제란 道 단위의 방어체제로서 主鎭 예하의 중요도시를 巨鎭이란 군사거점으로 삼고 주위 郡縣을 소속시켜 自戰自守하게 한 지역방위 체제를 말한다. 이 방위체제는 국가전면전을 예상하고 수립된 방위체제가 아니라 倭寇와 藩胡와 같이 영토점령이 아닌 小規模 侵略과 掠奪을 방어하기 위한 방위체제였기 때문에 道 單位 이상 방위계획이 전무한 상태였다.<sup>93)</sup> 鎭管체제의 단점이 나타난 것은 명중 10년에 발생한 乙卯倭變이었다. 즉 일시에 일정한 지역으로 대규모 병력이 침략해 왔을 때 이를 제어할 군사력 不足, 隣接地域과 協助體制 不備 등의 問題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방위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戰術體制가 바로 制勝方略이었다.

새로운 전술체제인 制勝方略은 국가차원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었다. 邊將들이 鎭管체제의 단점을 임의로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壬辰倭亂을 맞이하게 되었다.<sup>94)</sup> 내용과 운영체계가 지방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종래 鎭管체제가 防禦 爲主의 戰術體制였다면 制勝方略은 攻擊과 防禦 戰術이 內包되어 있다는 것과 分散된 兵力을 集中運用할 수 있다는 長點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92) 『宣祖修正實錄』 선조 20년 9월 丁亥.

93) 장학근, 『韓國 海洋活動史』(해군사관학교, 1994), 172쪽.

94) 허선도, 「제승방략연구」, 『진단학보』 37집(진단학회, 1974), 38-40쪽.

집중된 병력을 운용할 때는 기존 지휘체제와 별도로 朝廷에서 임명된 京將이 현지로 내려가 집결된 병력을 지휘하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sup>95)</sup>

현존하고 있는 함경북도의 制勝方略을 增補한 사람은 함경도 북병사 李鎰이었다.<sup>96)</sup> 선조 21년(1588) 6월 李鎰이 『制勝方略』을 증보한 목적은 빈번한 여진족의 침략을 對備한 것으로, 그것은 국가차원의 국방전략이라기보다 함경북도에 한정된 「戰術教範」의 성격이 강하다.<sup>97)</sup>

이일은 1538년(중종 33)에 태어나 25세(1558)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初任으로 宣傳官에 임명되고, 咸從·端川·碧潼 군수와 慶興·穩城 府使 등을 역임하고, 全羅道 水使로 근무하던 중 藩胡의 침탈이 극심해지자 조정은 1583년 1월 그를 경원부사로 발령하였다.<sup>98)</sup> 그가 경원부사로 부임하자 니탕개의 敵胡가 鐘城을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일은 휘하 군사를 이끌고 오랑캐를 격퇴하였다.<sup>99)</sup> 1585년(선조 18) 조정은 이일을 會寧府使로 전보시켰다. 그것은 會寧이 적로의 요충지에 있고, 니탕개가 회령진을 자주 침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장수로 이일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가 부임하자 니탕개는 胡賊 2만여 騎를 이끌고 회령부 高嶺鎭을 침략해 왔다. 회령부사 이일은 賊路를 차단하고 협공하여 니탕개 무리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빈호의 침략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그 공로로 이일은 1587년(선조 20) 9월 함경도 북병사로 승진되었다.<sup>100)</sup> 북병사 이일은 1587년 11월 경흥진 군사 400여 기를 동원하여 楸島에 살고 있던 여진족 尓尼應介 부락을 습격하여 가옥 17채를 불태우고 오랑캐 33급을 참획하였다.<sup>101)</sup> 이일은 1588년 1월 은성진 토착군사 2,700여 명을 징발하

95) 북도 제승방략은 남방지역과 달리 관찰사가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

96) 『制勝方略』 권2, 跋文.

97) 『宣祖實錄』 선조 32년 7월 乙卯.

98) 위의 책, 선조 16년 4월 戊午.

99) 李宜顯, 『陶谷集』 권10.

100) 『宣祖實錄』 선조 20년 9월 庚寅.

101) 『制勝方略』 권1, 「조산보」·「녹둔도」.

여 3邑 分軍戰術에 따라 두만강 건너 時錢部落을 섬멸하였다. 이 전투에서 이일은 오랑캐 가옥 2백여 채를 불태우고 오랑캐 383급을 참획하는 큰공을 세웠다.<sup>102)</sup> 선조는 여진족의 침탈을 분쇄하여 북방변경을 안전하게 한 이일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쌀 20석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적과 내통한 宋千壽 부자를 임의로 처형했다는 병조판서 정언신의 이일 파면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일을 유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전쟁영웅을 아껴 국가위기 때 그를 重用하여 국난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북병사 이일은 북방야인의 침탈을 제압한 전쟁영웅이었으며, 문서로 전해지고 있는 『制勝方略』을 增補 編纂한 戰略家이기도 하였다.<sup>103)</sup> 또한 1587년 時錢의 오랑캐 골간 우디캐족의 추장 何吾朗阿가 녹둔도를 침략하여 우리군사 10여 명을 죽이고, 농민 160여 명을 사로잡아가자 패전 책임을 물어 경흥부사 李慶錄과 屯田官 李舜臣을 拘禁·杖刑·白衣從軍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sup>104)</sup>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조정은 4월 13일 李鎰을 경상도 순변사로 임명하였다. 그것은 이일에게 왜군의 주력이 북상하고 있는 中路를 차단시키기 위함이었다.<sup>105)</sup> 이일이 서울을 출발한 것은 4월 21일이 었다. 그의 출발이 늦어진 것은 휘하군사가 없어 군관 60여 명과 함께 군사 4,000여 명을 모집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sup>106)</sup> 그가 조령을 넘어 聞慶에 도착한 것은 4월 23일이 었다. 그러나 문경에는 군사들이 없었다. 그것은 경상감사 金晬가 『制勝方略』의 전술에 따라 각 고을로 移文을 보내 군사들을 약속한 장소(대구)로 모이게 했기 때문이다.<sup>107)</sup> 불행하게도 대구에 모인 군사들은 통제하는 사람없이 순변사의 도착만 기다리던 차에 왜적이 먼저 진입하자 야음을 틈타 모두 흩어져 버렸다.<sup>108)</sup> 이일은 문경에서 창고를

102) 위의 책, 「무이보」.

103) 『制勝方略』跋文.

104) 『宣祖實錄』 선조 20년 10월 辛未.

105) 『宣祖修正實錄』 선조 25년 4월 庚寅.

106) 『宣祖修正實錄』 선조 25년 4월 庚寅.

107) 위의 책, 선조 25년 4월 庚寅.

열어 서울서부터 진군해 온 군사들을 먹인 후 24일 상주에 도착했다. 상주 목사는 순변사를 맞이한다는 핑계를 대고 山谷으로 피신하고 판관 權吉만이 관아를 지키고 있었다. 이일은 권길에게 군사를 수색 모집케 하는 한편 창고의 곡식을 풀어 농민 2,000명을 모집했다. 이일의 군사는 6,000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 군사들은 모두 急募한 烏合之卒이었다. 이일은 그들을 尙州 北川邊에서 習陣시켰다.<sup>109)</sup> 그것은 짧은 시간일 망정 기초 훈련을 통해 북상하는 왜군과 대치해 보겠다는 노력이었다.

당시 상주로 진격한 왜군은 小西行長이 인솔하는 18,700명이었다. 그들은 1592년 4월 14일 동래를 함락한 다음 淸道→대구→선산을 거쳐 상주로 진입했던 것이다. 그 왜적에 항거하려 했던 李鎰의 행동을 「宣祖修正實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왜적은 이미 善山에 이르렀다. 저물녘에 開嶺 사람이 와서 적이 가까이 왔다고 알리자, 이일이 사람들을 迷惑시킨다고 그를 참하였다. 이일의 군사는 斥候를 세우지 않은 데다(개령 사람을 참한 이후) 감히 적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적병이 상주 남쪽 20리 되는 냇가에 주둔하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이일이 한창 상주 北川邊에서 습진하고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을의 성안 몇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일이 그제야 군관 朴挺豪 등을 시켜 정탐하게 하였다. 적은 이미 숲 속에 잠복하고 있다. 즉시 총을 쏘아 挺豪 등을 죽여 머리를 베어 가지고 갔다. 挺豪는 본래 勇士로 병졸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꺾일 정도의 인물이었다.

적이 마침내 크게 집결하여 砲丸을 일제히 쏘며 좌우를 포위하니 우리 군사들이 겁에 질려 활을 쏘았으나 활시위를 힘껏 당기지도 못했다.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이일은 말을 달려 도망하였으며 군사들은 모두 섬멸당했다.”<sup>110)</sup>

108) 위와 같음.

109) 위와 같음.

110) 위와 같음.

이일이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휘하 군사가 烏合之卒이며, 이일 자신도 戰鬪地形에 未熟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지휘관으로서 발휘해야 할 전술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침략군을 방어할 수 있는 戰術的 要塞, 조령과 문경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4,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무리하게 상주까지 남하였다. 둘째, 적후를 세우지 않아 賊情을 파악치 못했다. 셋째, 적군이 근접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군을 보호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習陣을 실시했다. 넷째, 주민의 군수지원이 편리하고 방어전이 용이한 邑城을 이용하지 않고 은폐되지 않은 北川邊에 軍陣을 설치했다. 이와 같이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基本戰術原則을 무시한 전투는 적이 포환을 쏘면서 포위하자 곧바로 隊伍가 무너져 모두 섬멸 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투 양상이 불리해지자 순변사 李鎰은 奴子 한 명과 함께 전투지역을 벗어나 문경으로 도망쳐 패전보고를 하고 조령을 넘어 신립의 軍陣으로 들어갔다.<sup>111)</sup>

이일이 순변사가 되어 떠난 후 조정은 신립을 都巡邊使로 임명하였다. 그것은 이일의 군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전하였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고, 이일 군이 패할 경우 제2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었다.<sup>112)</sup> 이일과 달리 申稜이 출전할 때는 정예 군관 수천 명과 朝官들이 모집한 군사 8,000명을 인솔하였다.<sup>113)</sup> 충주에 도착한 신립은 휘하군사 대부분을 丹月驛에 주둔시킨 후 군관 몇 명만 대동하고 鳥嶺으로 地形偵察을 떠났다. 그곳에서 신립은 尙州의 敗將 李鎰을 만났다. 신립은 방어태세를 취하기 위

111) 위와 같음.

112) 『宣祖修正實錄』 선조 25년 4월 庚寅.

유성룡이 신립에게 계책을 물었을 때 신립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일이 외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후속 병력이 없다. … 무장을 급히 보내 이일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113) 위와 같음.

“신립이 거느린 사람은 도성의 武士·材官·外司의 庶流·閑良人으로 활 잘 쏘는 자가 수천 명이였다.”

해 이일에게 전황을 물었다. 이일은 “훈련되지 못한 군사로 정예한 왜군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당시 신립을 호위했던 金汝叻은 이일의 말을 듣고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왜군은 병력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그 銳鋒과 직접 交戰하는 것보다 이 험준한 요새에서 防禦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높은 언덕을 짐겨 하여 역습하면 적의 진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sup>114)</sup>

그러나 신립은 지형지물을 이용한 방어전을 전개하자는 김여물의 제안을 거부하고 騎馬戰으로 왜군을 제압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이 지역은 騎馬兵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sup>115)</sup>

병력이 부족하고 그 군사마저 정예화 되지 못한 現實에서 鳥嶺의 地形地物을 이용하여 방어전을 펼치자는 金汝叻의 주장은 “中路를 따라 북상하는 敵의 北進을 遮斷하라”는 조정의 의도에 부합되는 전술이었다. 그러나 申砮은 그의 건의를 묵살하고 野戰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가 女眞族을 제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던 騎馬戰을 倭와의 戰鬥에서 다시 사용하여 공을 세우겠다는 의도였다.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당시의 전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신립과 친한 군관이 ‘적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은밀히 알리자, 신립은 망령된 말이라고 그를 참수했다. 그런 후 ‘적이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았다’는 장계를 올린 후, 군사를 올려 彈琴臺로 나가 배수진을 쳤다. 앞에는 논

114) 위와 같음.

115) 위와 같음.

이 많아 말이 달리기에는 불편했다.

27일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 단월역에 이르렀다. 목사 李宗長과 李鎰이 척후가 되어 전방에 나섰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적정을 보고할 수 없게 되었다. 신립은 적의 동태를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새벽 적병이 길을 나누어 大陣은 곧바로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좌군은 達川 강변을 따라 내려오고, 우군은 산을 따라 동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는데 병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신립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말을 채찍질하여 州城으로 나아가니 군사들은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숨어버렸다. 城 안에 있던 왜적이 호각으로 소리를 내자 왜적들이 일시에 성을 박차고 나와 공격하니 신립의 군사가 크게 패했다. 적은 벌써 사방을 포위함으로 신립이 다시 진 진 곳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에 빠져 흘러가는 시체가 강을 덮을 정도였다. 신립이 김여몰과 말을 달려 활을 쏘아 적 수십 명을 죽인 뒤에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 이일은 사잇길을 따라 산으로 들어갔다가 왜적 두세 명을 만나 한 명을 쏘아 죽여 首級을 가지고 강을 건너 급히 패전보고를 하였다. 그 보고로 조정이 처음으로 신립이 패하여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 병조에서는 이일의 죄를 용서하고 바친 왜적의 머리를 남쪽 성문에 매달았다.”<sup>116)</sup>

위 기록을 중심으로 신립의 戰術의 敗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립은 방어가 유리한 鳥嶺의 天然要塞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에 불리한 단월 들판을 전투지역으로 택했다. 이는 피아의 전투능력을 파악치 못한 전술이었다.

둘째, 신립은 적의 주력무기인 鳥銃이 원거리 殺傷能力을 갖춘 신형무기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함경북도 변경지역에서 女眞族을 제압하는데 騎馬戰이 유용했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倭軍을 기마전으로 제압하려 했다. 이것은 신립이 전쟁의 다양성을 이해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가 전투지역으로 선정한 단월지역에 눈이

116) 위와 같음.

많아 그가 계획했던 騎馬戰 마저 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셋째, 신립은 군졸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敵情 보고를 무시했다. 또한 뒤늦게 斥候를 담당한 李鎰 군이 왜군에게 諜報路를 차단 당함으로써 신립은 敵 情報에 무지한 상태에서 적과 대치했다.

넷째, 신립은 휘하 병력에 대한 戰鬥編成을 하지 않은 채 결전함으로써, 전투의 勝敗를 가름하는 指揮統制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일이 공격명령을 하달하자 적진을 향하던 군사들이 흩어지고 도망쳤다.

다섯째, 신립은 전세가 불리해지면 안전한 곳으로 병사들을 후퇴시켜, 그곳에서 부대를 재편성, 好期에 적을 공격하는 전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신립은 병사들이 후퇴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江을 背水陣으로 삼아 후퇴한 병사들이 강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부대 재편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여섯째, 상주에서 敗한 李鎰은 탄금대 전투 때 신립에게 전술도움이나 전투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전투지역을 벗어나 도망쳤다.

탄금대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서울을 버리고 蒙塵 길에 올랐다. 이일은 서울로 돌아와 留都大將 李陽元 휘하에 들어가 한강을 방어하려다 패하고 다시 후퇴하여 임진강 북상에서 왜군을 막으려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하였다.<sup>117)</sup> 그런 후 행방이 묘연해져 선조가 그를 초조하게 기다리기까지 했다. 선조가 평양에 이르자 이일은 군사 3,000을 모아 광해군을 호위하며 초췌한 모습으로 평양에 나타났다. 그는 王城灘 전투에 참여하여 왜적 80여 명을 사로잡는 작은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전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공이 되지 못했다.<sup>118)</sup> 이후 이일은 1593년 지중추부사로 평안북도 병마사에 임명되고, 동년 10월 우변 포도대장, 1594년 양호 순변사, 1596년 함경북도 병사로 6년간 근무한 후 함경 남병사로 5개월간 재임하다 1601년 2월 6일 살인죄에 연루되어 서울로 호송도중 64세로 병사하였다.

117) 『宣祖實錄』 25년 6월 乙未.

118) 위와 같은 책, 선조 25년 9월 辛酉.

李鎰은 여진족을 제압할 戰略書인 『制勝方略』을 增補 編纂한 무장으로 그 명성이 조정에게 알려졌었다. 그러나 위에서 그의 일생을 개관하였듯이 壬辰倭亂 중 이일은 그의 명성에 걸맞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李舜臣은 李鎰보다 7세 연하였다. 그러나 武科合格은 이일보다 무려 18년이나 늦었으며, 전라수사에는 8년 늦게 임용되었다. 그는 이일과 같은 戰略書를 집필하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4차 출전하여 10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하여 不利했던 戰局을 好戰시켜 조정과 백성들에게 國家恢復의 희망을 갖게 하였다. 그것은 李舜臣의 戰術應用 能力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 예를 사례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玉浦海戰

옥포해전은 1592년 5월 7일부터 5월 8일 이틀간 행해진 해전이다. 이순신이 전쟁발발을 알게된 것은 4월 15일 오전 8시경 원균이 발송한 공문에 의해서였다. 이후 경상도 관찰사 金晬와 元均이 보낸 전황을 분석하면서 곧바로 鎭營整備·軍事訓練·出戰準備에 착수하였다.<sup>119)</sup> 선전관 趙銘이 조정의 출전명령을 전달하자 휘하 5管5浦에 召集命令을 발령하여 출전태세를 갖추었다.<sup>120)</sup> 이순신의 出戰準備態勢에서 주목되는 것은 戰鬥船團 編成이다. 이순신이 出戰 전에 편성한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즉 座船(지휘선)을 중심으로 중위장 방담첨사 李純信, 좌부장 낙안군수 申浩, 전부장 홍양현감 裴興立, 중부장 광양현감 魚泳潭, 유군장 발포가장 羅大用, 우부장 보성군수 金得光, 후부장 녹도만호 鄭運, 左斥候將 여도권관 金仁英, 참퇴장 본영군관 급제 裴應錄, 돌격장 본영군관 李彦良, 선봉장 경상우도 邊將으로

119) 『李忠武公全書』, 「因倭警待變狀」.

120) 위의 책, 「赴援慶尙道狀」.

구성했다. 이는 각 포구에서 징발된 군선과 그곳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투 임무를 부여했다.<sup>121)</sup> 그것은 기동항해를 할 경우 짧은 시간에 전투선단을 편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적진으로 기동항해를 하면서 이순신은 斥候船에게 急變이 있을 경우 神機箭을 쏘아 경계태세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sup>122)</sup> 이것은 전투전에 지휘통신체제를 확립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순신은 전투국면에서도 체계적인 지휘통신체제를 확립했던 것이다. 이순신은 휘하 판옥선 28척과 협선 17척을 동원하여 거제도 옥포를 향해 출전하였다.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이 전투체제를 완비하기 전에 우세한 화력을 이용하여 기선을 제압하였다.<sup>123)</sup> 이순신은 玉浦·合浦·赤珍浦 등 해역에서 倭大船 26척, 中船 8척, 소선 2척, 계 36척을 焚滅하는 전과를 이룩했다.<sup>124)</sup>

## (2) 唐浦海戰

당포해전은 경상우수사 원균의 요청으로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행해진 해전이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鶴翼陣을 사용하고 거북선을 처음 출전시켰다.<sup>125)</sup> 鶴翼陣은 원래 지상군의 戰術隊形이었는데 이순신이 해전에 응용한 것이다. 이순신이 해전에 학익진을 사용한 것은 조선군의 주력무기인 銃筒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 거북선은 상장을 판자로 덮어 승조원의 안전성을 높여줌으로써 돌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改良軍船이다.<sup>126)</sup> 이순신은 적의 세력이 우세할 때는 적 선단이 분산할

121) 위와 같음.

122) 위의 책, 「玉浦破倭兵狀」.

123) 위와 같음.

“적도들은 포구에 들어가 焚蕩질을 하여 연기가 산을 덮었다. 적들이 우리 군선을 보고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허둥대며 나오는 군선에 총과 활을 쏘았다.”

124) 위와 같음.

125) 위의 책, 「唐浦破倭兵狀」.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선단의 세력이 우세할 때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이 전법은 적중하여 泗川과 唐浦 해역에서 왜선 26척을 격파하는 승리를 이룩했다.

6월 5일 이역기 함대가 합류하여 전력이 강화된 이순신은 唐項浦와 栗浦에서 왜선 33척을 격파했다. 특히 당항포 해전에서 이순신은 적 선단의 指揮船을 집중 공격하여 적의 지휘통신 체계를 무력화시킨 후 적선단을 공격하는 전법을 사용하였다. 이순신이 사천, 당포, 당항포 해전에서 승리하자 “이순신이 해전을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그 소문을 듣고 난민들이 몰려 들었다. 이순신은 그들을 군영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집과 토지를 나누어 주는 亂民對策까지 실시했다.<sup>127)</sup>

### (3) 閑山海戰

해전에서 왜 수군이 연전연패하자 “해상 보급로 확보와 조선수군을 제거” 하라는 豐臣秀吉의 명령에 따라 증강된 왜 수군이 西進을 시작했다. 이순신은 왜군의 西進을 차단하기 위해 1592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 3일간 한산도 협수로에서 왜 수군을 격퇴하는 해전을 실시했다. 이 해전에서 이순신은 敵船을 誘引하여 鶴翼陣으로 제압하는 전법을 사용했다. 또한 이순신 함대를 공격함대로, 이역기 함대를 협조함대, 원군 함대를 후원함대로 편성하였다.<sup>128)</sup> 이순신은 견내량 해협이 좁고 조수가 물러나면 육지가 드러나 板屋船의 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적선을 바다로 유인해서 격파하는

126) 위와 같음.

127) 위와 같음.

“귀화인과 보자기들이 본영으로 모여든 수가 2백여 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해 장생포 등 땅이 기름지고 인가가 많은 곳에 나누어 살게 했다.”

128) 위의 책, 「見乃梁破倭兵狀」.

“본도 우수사(이역기)는 안골포 바깥 바다 가덕도 번두리에 結陣해 있다가, 우리가 집전하면 급히 달려오게 하고 … 경사 우수사는 신의 뒤를 따라오게 했다.”

전법을 구사했다. 이 때 이순신이 사용한 진형도 鶴翼陣이었다. 이순신이 학익진을 즐겨 사용한 것은 첫째, 명중률이 낮은 총동의 명중률을 높이고, 둘째, 화력을 계속적으로 구사할 수 있으며, 셋째, 다량의 화포를 일시에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산해전에서 이순신은 적의 대선 35척, 중선 17척 합계 59척과 340여 급을 획득하는 전과를 이룩했다. 또한 安骨浦 해전에서 적선 20여 척을 焚滅하는 추가 전과를 이룩했다. 한산해전으로 조선 수군은 남해안에 대한 制海權을 확보하게 되었다.

#### (4) 釜山浦海戰

부산포 해전은 1592년 9월 1일 행해진 전투였다. ‘남해안으로 후퇴한 왜군이 바다를 건너 일본 본토로 도망치려 한다’는 정보에 따라 삼도수군이 합세하여 부산포를 공격했다. 玉浦·唐浦·閑山島 해전이 防禦戰이었던데 반해 부산포 해전은 攻擊戰이란 특성이 있다. 부산포 해전에서 이순신은 다음과 같은 勝戰 戰法을 구사했다. 첫째, 기류를 이용한 지휘통신 체제를 확립했다.<sup>129)</sup> 둘째, 전투선단을 편성하여 전투시 군선별 임무를 분명히 하였다. 부산포 해전에서 이순신이 운용한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았다.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 거북선 돌격장 군관 이언량, 전부장 방담 첨사 李純信,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좌부장 낙안 군수 신호였다.<sup>130)</sup> 셋째, 부산포 진입 때 이순신은 長蛇陣(종열진)을 형성하였다. 이는 빠르고 은밀하게 포구 협수로를 진입하여 적 선단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sup>131)</sup> 부산포 해전에서 이순신 함대는 적함선 130여 척을 격파하는 전과를 기록했다. 이순신은 보고서를

129) 위와 같음.

“독전기를 휘두르며 공격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기류를 이용하여 공격과 후퇴 등 군선의 함행동을 사전 숙지시켰다.

130) 위와 같음.

131) 위와 같음.

통하여 적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것은 왜군이 해전을 기피하고 육지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水陸合同作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sup>132)</sup>

위와 같이 이순신이 임진왜란 초전에 4차 출전하여 10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한 것은 전쟁 국면에 맞는 전술응용과 선단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전술편대를 운용했기 때문이다.

李鎰과 李舜臣은 모두 武科 출신 장수였다. 官僚의 年輪과 군사적 經驗은 李舜臣에 비해 李鎰이 월등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무명의 이순신이 수사로 임명되었을 때,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諫院의 반대도 빈번했다. 그러한 이순신이 해전에 출전하여 전투마다 승전을 이룩했다. 반면 名將으로 인식되었던 이일이 巡邊使라는 고위직으로 尙州戰에 참전했지만 그는 이렇다할 전술도 펼치지 못하고 패전했다. 이후 그는 충주와 한강 평양전투에 참전하였으나 단 한차례의 승리도 이룩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두 무과 출신장수가 전쟁에서 승패를 달리한 것은 이순신이 평소 武學 중심의 전술 연마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일은 武藝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순신은 전술 국면에 맞는 전술을 응용하고 지상무기와 전술진형을 해전에 응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반면 이일은 戰爭 局面의 多樣性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그에 걸맞는 전술이나 무기를 응용하지 못하고 패전했던 것이다.

## 6. 結 論

이순신은 1576년 32세의 나이로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자 29명 중 12등으로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4세로 이순신(32세)보다 연령이 높은

132) 위와 같음.

사람이 무려 17명이나 되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3세였으며, 최고령자는 52세였다. 丙子 武科 합격자 29명 중 任官者는 16명으로 13명은 무과에 합격하고도 관료가 되지 못했다. 합격서열이 우수했던 甲科와 乙科 출신들 중 대부분은 당하관 이하로 관직을 마감한 반면 병과 출신 중 당상관 이상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 6명이나 되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이순신이었다. 이순신의 최초 보직은 함경도 동구비보 權管(종9품)이었다. 이순신은 무직 상태에서 무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가 10년만에 조산보 만호로 승진하자 이순신 보다 무과 합격서열이 1등급 높았던 李慶錄은 이미 慶興府使(종3품)로 이순신 보다 2품계가 높은 상급 지휘관의 위치에 있었다. 또한 함경북도의 최고 지휘관은 전라수사를 역임한 북병사 李鑑이었다.

1587년 여진족이 녹둔도를 침입하여 우리 군사 10여 명이 살해되고 주민 106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李鑑은 李舜臣에게 敗戰 責任을 물어 杖刑을 가한 후 白衣從軍하게 했다.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북방전투에서 패했던 이순신은 水使가 되어 해전에 참전하였다. 그는 4차 출전하여 10회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반면 북방의 名將 이일은 巡邊使로 남방전투에 참전하여 尙州·忠州·漢江·平壤 등지에서 모두 패했다. 두 武科 出身 장수가 전쟁에서 勝敗를 달리한 것은 武科 준비과정과 관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일이 武藝 중심으로 수련한 반면 이순신은 武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순신은 戰爭局面과 戰爭環境에 맞는 戰術應用能力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이일은 북방에서 자기가 增補·編纂한 制勝方略의 전술에 집착하여 戰爭環境에 적응하는 전술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創意力과 戰術 應用能力 개발의 중요성을 재음미하게 하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3. 7. 11,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이순신, 무과, 이일, 합격서열, 전술능력

<ABSTRACT>

Admiral Yi Sun-sin's Success in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and Tactical Practice Capability between  
Admiral Yi Sun-sin and Yi Il during Wartime

Chang, Hak-keon

The Chosun dynasty developed a system to enrich and strengthen a country through employing officers both from civil and military service. This was the effort to develop the country through an objective examination called "KwaKeo." When the country was in danger by the Japanese, Yi Sun-sin who was one of the military service members, participated in sea combat and defeated the Japanese 10 times at sea. He saved the country from a dangerous situation.

Despite numerous academic studies about Yi, Sun-sin, there is not even one study about his academic record and promotion history. This paper tries to explore Yi, Sun-sin's success in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and also compares Yi Sun-Sin with his colleague, Yi, Il.

This is dedicated to our present ROK army officers who are trying to overcome the barriers and unify the country in the current situation. Also, through Yi Sun-sin's life, this paper tries to make the officers realize how important military practice and training are.

Key Words : Yi, Sun-sin, military examination, Yi, Il, Test Rank, Tactical ability